

詩가 畫요, 畫가 詩니... 의재가 무등이요, 무등이 의재로다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20> 문인화가 허백련과 광주 동구

미술대사전에 따르면 문인화는 “문인(지식인)의 여가적(餘枝的)인 회화”를 뜻한다. 벼슬과는 무관한 선비나 시인묵객이 시와 혹은 서화를 능숙하게 그린 것을 말한다. 오늘의 관점에서 문인화는 문사철(文史哲)을 겸비한 한국화가 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융합형 예술가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들은 ‘선비’라는 품도 외에도 예술가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지식인이면서 화가인, 화가이면서 지식인인 이들에게 삶과 그림은 분리되지 않는다. ‘藝生不二’는 이들이 지향하는 하나의 궁극의 지점이었던 것이다.



광주 윤림동 중심사 가는 길에 자리한 의재미술관은 허백련의 예술과 삶의 집약된 곳이다.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1891~1977)은 남종 문인화의 대가다. 그는 추사 김정희와 소치 허유 등으로 부터 이어 받은 남종화의 맥을 사유와 견문, 고전을 토대로 새롭게 해석한 인물이다. 서구의 개념에 근거한다면 ‘르네상스적’인 인간이 바로 허백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예술은 재능과 노력을 뛰어넘는 인문주의, 격조와 바른 삶과 깊은 사유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 여느 예술가들과 차별된다.

그의 예술이 시와 서, 화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의재는 “시는 형상이 없는 그림이고 그림은 말 없는 시라야 한다고 했다. 도무지 인품이 조절해야 사상이 높고 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예술의 본질은 경계를 지우는 것이다. 편견과 이데올로기를 지우고, 흑백으로 대비되는 인종의 갈등을 지우고, 자신이 강제한 부와 빈의 경계도 지운다. 지워야 그 안에서 색이 뜨고 꽃이 핀다. 지워야 그림 수 있고, 그림 때 비로소 경계는 사라진다.

역설적으로 경계가 없는 화폭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계를 무너뜨리게 한다. 이편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힘! 사상과 이념, 자본 등 모든 허위와 가면들이 구획했던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오로지 맑은 정신과 사람다운의 꽃이 피어난다.

초겨울, 그 미술관을 찾아가다. 중심사 길에 자리한 의재 미술관, 허백련의 활달한 필묵과 시적인 풍취가 구원된 공간이다. 반대편에는 크고 작은 바위를 끼안은 무등의 계곡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아 계곡의 물은 명징하게 빛난다. 그 형형한 빛은 한 시대를 품어왔던 예인의 예술혼을 담은 듯하다.

이따금 고요를 깨는 산새들의 지저귀음은 다정없이 잔잔하고, 산행을 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무심할 뿐이다. 여름 한철 푸르디푸른 열매로 불타오르던 나무들도 하나둘씩 잎들을 털어내며 동면을 채비한다. 저 산은 그저 그런 산이 아니고, 나무는 그저 그런 나무가 아니다. 산수(山水)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진팔황’

삶과 예술 경계 허문 남종 문인화 대가 추사 김정희·소치 허유 맥 이으며 재해석 윤림동 제2 예술의 거리·중심사 아트밸리 부상

의재 허백련의 산수가 그렇다. 나무는 나무가 아님을, 바위는 바위가 아님을 그의 화폭은 보여준다. 변화무쌍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성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심세중은 ‘의재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계하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말하자면 나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씩을 띄워 자라나고 꽃을 피우는 그 힘의 흐름을 그리는 것이고, 바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품고 있는 무게를 그리는 것”이라고.

의재는 1891년 진도에서 태어나 평생 1만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남겼다. 8세 때 진도에 유배 중이던 무정(茂亨) 정만조의 서당에서 글공부를 시작한다. 11세부터는

소치의 아들이자 남종화의 맥을 잇는 미산 허형의 문하생이 된다. 18세 때는 해배된 스승 정만조를 따라 서울로 가지만, 이내 한일합방이라는 국치로 인해 서울 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른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일본 남종화의 대가 로 알려진 소실취운(小翠취운)에게 그림을 배운다. 소실취운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 후 이내 돌려보낸다. 의재의 그림에 왜색이 느껴지는 것은 일본 스승의 선견지명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가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그림을 공부한 것은 자신만의 화풍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그가 유년에 배웠던 남종화는 현존하는 것이 아닌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추사 김정희, 초의선사의 그림이었던 탓이다.

“나는 처음부터 내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다. 처음엔 미산 그림 같았고 후에는 소치 그림, 중국의 대치 그림과도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내 그림은 미산 것도 소치 것도 대치 것도 아니다. 개성은 어디까지나 전통 위에서 꽃피워야 하며, 처음부터 자기 독단의 개성은 생명이 길지 못하다. 전통을 철저하게 알고 뒤으면 자연 자기 것이 생기게 된다.” (의재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계하지 않는다).

광주에 있는 의재로는 허백련의 호에서 연유한다. 지하철 학동역 인근 선생의 동상 앞에서 윤림동 전통문화관 인근까지의 길이다. 허백련이 광주와 무등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인화가라는 의미다. 윤림동 일대가 광주 제2의 예술의 거리, 중심사 아트밸리로 부상한 이면에는 의재와 의재미술관이 자리한 때문이다. 무등현대미술관, 국음미술관, 우제길미술관, 전통문화관을 아우르는 ‘아우라’는 바로 의재의 삶과 예술의 자장에서 나온다.

의재는 지난 15년간 미술품 경매에서 한국화 6대가 중 낙찰작품수는 두 번째, 낙찰총액은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그림이 좋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의재는 한 손에는 붓을 들었지만 또 다른 손에는 동양의 고전을 추켜들었다. 하늘과 땅, 사람을 사랑하지는 ‘삼애사상(三愛思想)’을 설파한 이유다. 청빈한 사상과 검박한 삶, 겸허의 자세는 그의 예술과 생을 일관되게 관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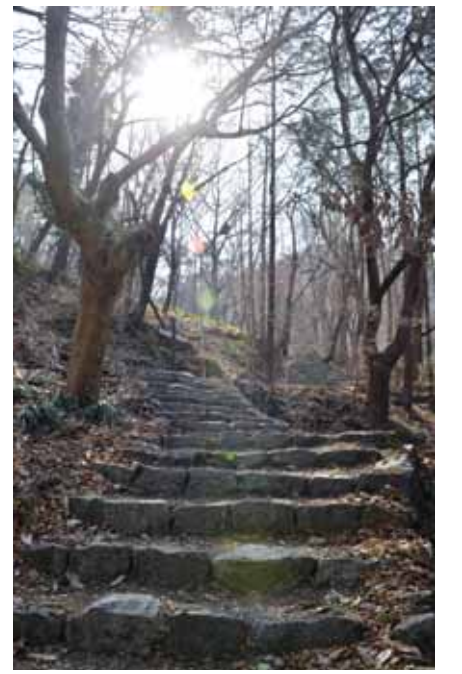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은 허백련을 주제로 한 특별전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을 내년 2월 21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강산 여행에서 스케치한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한 ‘금강산도’ 병풍, 말년에 그린 작품을 화첩으로 만든 ‘춘설현심화첩’ 등을 볼 수 있다.

계곡을 건너면 의재가 말년에 머물렀던 화실 춘설현(春雪軒)이 있다. 그의 천품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다. 소담하면서도 정갈한 그러나 청정한 그의 자취가 곳곳에 드러워져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의재가 생전에 사용했던 필묵. ▶춘설현 가는 길. ▼의재가 말년에 머물렀던 춘설현.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홍나무외, 스텔라외벽, 벽면재(아크릴)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